

Hamlet의 성격 연구*

金 光 浩

서 론

극 *Hamlet*은 Shakespeare를 말할 때 누구에게나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를 만큼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 극은 Shakespeare의 완전한 창작물은 아니며 그가 쓴 다른 대부분의 극과 마찬가지로 선인들이 남긴 이야기를 개작한 것이다. *Hamlet*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는 멀리 중세기의 전설에서 유래하며 12세기 말, 또는 13세기 초에 Denmark의 Saxo Grammaticus가 라틴어로 쓴 *Historica Danica*의 제 3권에서 이미 *Hamlet*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1514년에 첫 출판되었고, 이것을 Francois de Belleforest가 불어로 번안하여 그의 저서 *Histoires Tragiques*(1576) 제 5권에 수록하였다. 이것은 다시 Thomas Pavier에 의하여 *The Historie of Hamblet*라는 제목으로 영역되었으나 출판된 것은 Shakespeare의 *Hamlet* 극이 유명해지고 난 후인 1608년이었다. 또 한편 영국에서는 1589년에서 1896년 사이에 작자미상의 *Hamlet* 극이 대인기 속에 상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문헌이 남아 있다. 독일 학자들에 의하여 *Ur-Hamlet*라고 명명되고 있는 이 극은 실종되어 오늘날 남아 있지 않으나, 아마 Thomas Kyd(1557?~1595)에 의하여 쓰여졌으리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Shakespeare는 Saxo나 Belleforest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나 읽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그의 *Hamlet* 극을 쓰는데 직접적인 소재로 삼은 것은 *Ur-Hamlet*였으리라는 것이 통설이다. Kyd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극은 현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감스럽게도 그 내용을 알려주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상실된 극의 내용을 우리는 Kyd의 *Spanish Tragedy*(1592) 등, 당시에 쓰여진 여러 복수극과 Saxo의 이야기 등에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요컨대 그것은 살벌한 Seneca적 유혈비극, 또는 복수비극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고 그 주인공도 Shakespeare 극의 주인공 같은 고귀한 면을 조금도 갖지 않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이런 소재를 개작하면서 Shakespeare는 극의 풀롯에 있어서는 원작을 대체로 충실히 따랐다. 그 결과 그의 *Hamlet*에는 Elizabeth 시대의 유혈비극이 즐겨 채택한 선정적이고 무서운 복수극의 전통적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암살, 유령, 근친상간, 극중극, 발광한 여인, 묘지에서의 격투, 독살의 흥계, 대단원의 유혈소동 등 *Hamlet*에 포함된 금지한 이야기들은 극 속에 유혈과 공포를 갈망하던 Elizabeth시대 관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다. 이리하여 이 극은 처음부터 인기있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만일 이 극이 무서우면서도 흥미진진한 풀롯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근 300년 동안이나 명맥을 유지하고, 세계문학을 통털어서 가장 자주 상연되어온 극이 되고, 또 가장

* 이 논문은 1983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많이 읽혀온 문학작품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극 *Hamlet*이 단순한 복수극 이상의 불가사의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 매력이 주로 주인공 Hamlet에게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Bradley가 말하였듯이¹⁾ 극의 풀롯 만으로 보면 *Hamlet*은 Shakespeare의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작품인데도 전체적 인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작품들보다 덜 무서운 것은 *Hamlet*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매력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Shakespeare는 소재를 개작하면서 무서운 효과를 주는 풀롯은 대부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주인공 Hamlet의 성격에 있어서는 찬인한 복수를 향하여 돌진하는 야만인에게서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인간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본위, 흥미본위에 불과하던 원래의 이야기를 심리적, 예술적 비극으로 승화시켜 놓았다. *Hamlet*의 성격 고찰에 있어서 중심문제로 제기되는 양광(佯狂)과 복수지연을 예로 들어, 이 두 요소는 소재에서 주인공의 성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왕은 언제나 많은 호위병에 의하여 경호되고 있었으므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 또 적의 의심을 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수자는 양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그의 복수는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하여 Shakespeare의 *Hamlet*처럼 번민하지 않고 다만 불가피한 사정을 한탄할 뿐이었다. 그러나 Shakespeare는 양광과 복수자연을 *Hamlet*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을 갖도록 바꾸어 놓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성격에 최고도의 복잡성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깊이를 부여해 놓았다.

*Hamlet*은 처음 상연될 때부터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고 가장 많이 상연된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 인기도는 19세기 초 낭만파 비평가들에 의하여 야기된 암도적인 열기에 비하면 문제 가 되지 않을 정도이었다. 이것은 주로 당시 영국인들에게 주인공 Hamlet의 성격이 쉽게 포착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Hamlet*을 세계 문학 작품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매력있는 인물로 보게하고, 그의 성격에 대하여 열광적으로 논의하게 하는 체기를 만든 것은 Goethe이다. 그는 또 *Hamlet*의 복수지연에 대하여 주목을 하게 만든 최초의 비평가이기도 하다. 과거에 나온 *Hamlet*의 성격비평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커던 그의 유명한 *Hamlet*관은 다음 귀절 속에 요약되어 있다.

A lovely, pure, noble and most moral nature, without the strength of nerve which forms a hero, sinks beneath a burden which it cannot bear and must not cast away. All duties are holy for him; the present is too hard. Impossibilities have been required of him; not in themselves impossibilities, but such for him. He winds, and turns, and torments himself; he dawances and recoils; is ever put in mind, ever puts himself in mind; at last does all but lose his purpose from his thoughts; yet still without recovering his peace of mind.²⁾

Goethe의 이런 견해는 Coleridge, Schlegel, Dowden, Bradley 등, 낭만주의 비평가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는데, 이들은 Goethe의 견해를 다소 변형시키기는 하였으나 *Hamlet*을 복수라

1) A.C. Bradley, *Shakespearean Tragedy*(1904; London: Macmillan, 1957), p. 70 참조.

2) Johann Wolfgang von Goethe, "Wilhelm Meister's Apprenticeship"(1795~1796), trans. Thomas Carlyle (1824), rep. in *Hamlet: Enter Critic*, ed. Claire Sacks and Edgar Wha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0), p. 67.

는 야만적인 행위에 부적합한 온순한 인물로, 실제적인 행동을 기피하는 명상적이고 우울한 문학청년으로 보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Goethe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Turgenev는 Hamlet을 Don Quixote와 대조시키고 이들이 인간의 성격이 지니는 두개의 유형을 이룬다고 주장하였고,³⁾ 여기에서 내성적이고 감상적이며 행동력을 결여하는 인간을 Hamlet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통념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Hamlet관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용되어 왔고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큰 수정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Hamlet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복수의 중임을 지고있는데도 도덕적이고 극도로 명상적인 성격 때문에 회의와 번민을 거듭하는 과정을 보면, 그를 행동과 주저 사이에서 방황하는 감상적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주 부당하다고만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낭만적 Hamlet관에 대한 반동으로 금세기에는 Hamlet의 행위를 그의 마음 속에 무의식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Oedipus complex의 소치로 보고,⁴⁾ 또 그를 강인한 성격을 지닌 행동가로서, 심지어는 그를 악인으로 보는 등,⁵⁾ 낭만주의 비평가들의 지나치게 근대적이고 심리학적인 해석과 정반대되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어 왔다.

Hamlet에 관한 상식적 개념이나 그의 성격에 관한 무수한 비평들을 극의 본문에 비추어 재조명해 볼 때 과연 그것들이 정당한 근거에 입각하고 있느냐, 또 그것이 Shakespeare가 의도한 Hamlet 상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작가가 극 속에 묘사해놓은 Hamlet의 성격을 너무나 신비하고 복잡하며,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순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Hamlet관은 모두가 그의 복잡한 성격을 단순화하고 또 그 어떤 일면 만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마치 그것이 그의 성격의 전부인듯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Hamlet은 실존인물이 아니고 극중인물인 것을 잊고 그를 극 밖으로 끌어내어 너무 주관에 치우친 고찰에 시종하여 추상화된 Hamlet상을 그려내고, 심지어는 극의 본문을 무시하고 그에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인간, 또는 자화상을 찾아내 보려고까지 하였다.

These minds often find in Hamlet a vicarious existence for their own artistis realization. Such a mind had Goethe, who made of Hamlet a Werther; and such had Coleridge, who made of Hamlet a Coleridge⁶⁾

Shakespeare가 그려놓은 Hamlet을 올바르게 파악하려면 Dover Wilson이

Apart from the play, apart from his actions, from what he tells us about himself and what other Characters tell us about him, there is no Hamlet. He is like a figure in a picture; his position therein, the light and shade around him, the lines and curves which constitute his form, are part

- 3) Ivan Sergeyevich Turgenev, "Hamlet and Don Quixote—the Two Eternal Human Types," *Current Literature*, Jan., 1907, trans. David A Modell, rep. in *A Shakespeare Encyclopaedia*, ed. by Oscar James Campbell and Edward G. Quinn (London: Methuen, 1966), p. 296 참조.
- 4) Ernest Jones, "Hamlet and Oedipus" (1949), rep. in *Hamlet: Enter Critic*, pp. 120-137 참조.
- 5) G. Wikton Knight, "The Embassy of Death: An Essay on Hamlet," *The Wheel of Fire* (1930;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57). pp. 38-45 참조.
- 6) T.S. Eliot, "Hamlet and His Problems," *The Sacred Wood* (1920; London: Methuen, 1960), p. 95.

of the composition of the whole, and derive their sole life and significance from their relation to the rest of the picture⁷⁾

라고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는 극 속에서 그 하나 만을 끌어내어 단독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그가 활동하는 극의 세계 안에서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추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Hamlet의 "consistently inconsistent"⁸⁾한 복잡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론

개막 첫장에는 Hamlet이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극 속에서 그가 차해있는 상황과 그 상황이 앞으로 그에게 과하게 될 임무의 성질을 미리 효과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 자독한 추위 속에 쥐 한마리 움직이지 않는 한밤중 Denmark의 왕궁은 불길한 어둠에 싸여있다. 보초를 교대하는 경비병들의 입을 통하여 첫 줄에서부터 연속적으로 튀어나오는 의문문들은 긴박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낸다.⁹⁾ 이때 보초를 교대한 Francisco가 퇴장하기에 앞서 남기는 짧막한 한마디

I am sick at heart. (I. i. 9)¹⁰⁾

라는 말은 단지 추위에 떨면서 의로이 근무해온 그의 괴로운 심증을 토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깊이 병들어 있는 Denmark 왕국, 또 나아가 왕자 Hamlet의 고독과 괴로움을 암시하는 의미심증한 말로 여겨진다. 어제 밤에는 유령이 나타났으며 오늘 밤에도 그것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경비병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Horatio는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나왔다. 이윽고 죽은 선왕과 꼭 같은 모습으로 갑옷으로 몸을 감싸고 나타난 유령이 두번에 걸쳐 무대 위를 오가며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사라지면서 조성해내는 분위기는 김박감을 숨막히도록 고조시켜 놓는다. 그것은 Horatio가

But in the gross and scope of my opinion,

This bodes some strange eruption to our state. (I. i. 71-72)

라고 말하듯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어떤 불상사를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금 Denmark는 Norway와의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위기는 그 자체 안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그것이 초래할 이변에 있다. 나중에 예민한 Hamlet이 유령의 출현을 전해듣자 즉각

My father's spirit—in arms! All is not well.

I doubt some foul play. (I. ii. 255-256)

7) J. Dover Wilson, ed., *Hamlet*, New Shakespeare ed., "Introduction" (1934; C.U.P., 1967), p. xlvi.

8) M.C. Bradbrook, *Shakespeare and Elizabethan Poetry* (1951; C.U.P., 1979), p. 86.

9) Maynard Mack, "The World of Hamlet" *The Yale Review*, XLI (1952), rep. in *Twentieth-Century Interpretations of "Hamlet"*, ed. David Bevingt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8), pp. 49-50, 및 Harry Levin, *The Question of "Hamlet"* (O.U.P., 1959), pp. 20-21 참조.

10) 본 논문에서 인용한 텍스트와 행수는 Harold Jenkins, ed., *Hamlet*, Arden Shakespeare ed. (London and New York: Methuen., 1982)에 따름.

라고 말하고 또 Marcellus가 재차 유령을 보고

Something is rotten in the state of Denmark. (I. iv. 90)

라고 말하듯이 유령의 빈번한 출현은 Denmark의 부정과 부패를 강력하게 인상시켜준다. 이어서 무대는 Elsinore 궁전의 접경실로 옮겨지고 암울하던 앞 장면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장면이 전개된다. 왕과 왕비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등장하는데 모두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령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며 외관과는 달리 유령에 의하여 암시된 부정과 부패에 물들은 인간들이다. 이 화려한 경계 속에 훌륭한 상복을 입은 Hamlet이 주목을 끄는 데 그는 우선 모습에서 주위의 밝은 분위기에 조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깊은 슬픔과 우울에 빠져있다. 그는 왕과의 최초의 대화에서 부터 심증의 불만과 거부반응을 신랄하면서 동시에 수수께끼 같은 말로 토로한다.

King. But now, my cousin Hamlet, and my son,—

Ham. A little more than kin, and less than kind.

King. How is it that the clouds still hang on you?

Ham. Not so, my lord, I am too much in the sun. (I. ii. 64-67)

여기에서 Hamlet의 말은 매우 애매모호하여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나,¹¹⁾ 표면적으로는 Harbage가 주석하여

Hamlet's first speech...denies any similarity in nature between himself and Claudius or feeling of good will (*less than kind*) in spite of the double relationship the other has stressed (*more than kin*). His second speech...expresses a distaste for being addressed as Claudius's son and for being exposed to the sunshine of his royal favor (*too much in the sun*).¹²⁾

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자기 부친의 뜻하지 않은 죽음을 몹시 슬퍼하고 있는 Hamlet은 숙부인 Claudius가 자기의 모친과 너무나 빨리 재혼한데 분개하고 있던 터에 그에게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모친은 아들의 처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I doubt it is no other but the main,

His father's death and our o'er-hasty marriage. (II. ii. 56-57)

또 한편 Hamlet은 여기에서 부패와 부정의 근원이며 원흉인 Claudius에게 자기의 정당한 권리인 왕위계승권을 친탈당한데 대하여 분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¹³⁾ Claudius는 사태를 그렇게 보고 있으며 Hamlet이 자기의 왕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항상 경계하고 있다. Hamlet 자신도 이 국 속에서 적어도 두번 그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A cutpurse of the empire and the rule,

That from a shelf the precious diadem stole

11) Horace Howard Furness, ed., *Hamlet*, New Variorum ed., Vol. I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3), pp. 33-35. 참조.

12) Alfred Harbage, *William Shakespeare: A Reader's Guide* (New York: Noonday Press, 1963), p. 306.

13) Wilson, *What Happens in "Hamlet"* (1935; C.U.P., 1959), pp. 32-33. 참조.

And put it in his pocket—— (III. iv. 99-101)

He that hath kill'd my king and whor'd my mother,
Popp'd in between th'election and my hopes, (V. ii. 64-65)

하여간 Hamlet은 무대에 첫 등장할 때 부터 Claudius를 불신하고 몹시 혐오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Hamlet의 원래의 모습, 부친의상을 당하기 이전의 인간상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후에 그가 유령에게서 Claudius가 부친의 살해자이며 왕위찬탈자임을 확인한 후에 Ophelia를 찾아갔을 때 그의 돌변한 모습을 보고 그녀가 한탄하는 대사 속에 들어있는 다음의 귀절

O, what a noble mind is here o'erthrown!
The courtier's, soldier's, scholar's, eye, tongue, sword,
Th'expectancy and rose of the fair state,
The glass of fashion and the mould of form,
Th'observ'd of all observers, quite, quite down! (III. i. 152-156)

에서 용모가 수려하고, 궁정인, 학자, 무사를 겸하고 유행계와 도덕계의 모범이 될 만큼 미적 도덕적 감수성을 겸비한, 이상적인 Renaissance 신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Hamlet은 한 나라의 황태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고, 극의 마지막에서 Fortinbras가

For he was likely, had he been put on,
To have prov'd most royal; (V. ii. 402-403)

이라고 말하듯이 장차 명군이 될 수 있는 소질을 충분히 갖춘 귀공자였다.

이런 Hamlet이 부친의 죽음을 의하여 Wittenberg에서의 학구생활에서 귀국하였을 때 그는 결과 속이 다른 부패한 Elsinore 궁전의 현실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Gertrude가 죽음은 인간세계의 상사인데 부친의 죽음을 유별나게 슬퍼하는듯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문자 Hamlet은 분개하여 반문한다.

Seems, madam? Nay, it is. I know not 'seems'.
'Tis not alone my inky cloak, good mother,
Nor customary suits of solemn black,
Not windy suspiration of forc'd breath,
No, nor the fruitful river in the eye,
Nor the dejected haviour of the visage,
Together with all forms, moods, shapes of grief,
That can denote me truly. (I. ii. 76-83).

그는 부친의 상증 궁정인들이 보이는 걸치레 뿐인 슬픔의 표시에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극 속에서 외관과 실체의 대립을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는 Hamlet에 걸맞게 그가 입고 나오는 옷이 그때 그때의 그의 심적상태와 항상 부합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 계속하여 Hamlet은

14) Mack, p. 54 참조.

But I have that within which passes show,
These but the trappiugs and the suits of woe. (I. ii. 85-86)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심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제 1독백에서¹⁵⁾ Hamlet은 자기 심중의 괴로움을 비통하게 토로한다.

O that this too too sullied flesh would melt,
Thaw and resolve itself into a dew,
Or that the Everlasting had not fix'd
His canon 'gainst self-slaughter. O God! God!
How weary, stale, flat and unprofitable.
Seem to me all the uses of this world!
Fie on't, ah fie, 'tis an unweeded garden
That grows to seed; things rank and gross in nature
Possess it merely. (I. ii. 129-137)

그는 자살을 희구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다. 잡초 만이 무성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권태와 혐오를 안겨줄 뿐이다. 그러면 이토록 격렬한 염세관을 그에게 초래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뜻밖의 부친의 죽음에 뒤이어 너무나 조급하게 치루어진 모친 Gertrude의 재혼이다.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 사건은 이 독백 속에서 여러번 반복됨으로써 그것이 강박관념이 되어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생전에 남달리 서로 사랑하던 부친과 사별한지 채 두달이 못되었는데, 그 장례를 지낸지 한달도 못되어 그토록 고결하였던 부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숙부와의 근친상각적인 재혼, 그것은 Hamlet에게 인생과 애정의 무상함, 여성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준다.

Frailty, thy name is woman— (I. ii. 146)

이리하여 모친에게서 맛본 절망감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환멸이 되어 그를 극단적인 비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런 Hamlet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인생을 열렬하게 사랑해온 청년인가를 알 수 있다. 나중에 Hamlet은 그의 동정을 살피러 온 Rosencrantz와 Guildenstern에게 말하는 대사 속에서

...this goodly frame the earth...this most excellent canopy, the air...this brave o'erhanging firmament, this majestic roof fretted with golden fire...What piece of work is a man, how noble in reason, how infinite in faculties, in form and moving how express and admirable, in action how like an angel, in apprehension how like a god: the beauty of the world, the paragon of animals— (II. ii. 298-307)

라고 말하여 그가 얼마나 우주와 인간을 이상시해왔는가를 보여주는데, 모친의 재혼은 그의 그런 아름다운 꿈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릴 만큼 깊은 충격을 안겨주기에 축하였다.

T.S. Eliot은 국 Hamlet을 죄지은 모친에 대한 아들의 감정을 취급한 작품으로 보는데, Hamlet의 감정은 그것에 대응할만한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¹⁶⁾이 결여되어

15) II. i. 129-159.

16) Eliot, p. 100.

있으며 모친의 범죄에 대하여 Hamlet의 감정은 지나치게 과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amlet은 위에서 인용한 그의 우주와 인간 친미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에 대하여 세계 전체에 대하여 아름다운 꿈과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또 Ophelia의 말에서 보았듯이 남달리 강한 도덕적 감수성도 지니고 있는 청년이었다. 더욱이 그는 Bradley가

Where else in Shakespeare is there anything like Hamlet's adoration of his father? The words melt into music whenever he speaks of him.

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죽은 부친을 우상시할 만큼 존경하고 있었다. 이런 청년 Hamlet이 목격한 모친의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가하여진 부정 이상으로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게다가 모친이 재혼한 상대자는 숙부인 Claudius이므로 그녀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다. 이 근친상간의 죄는 Elizabeth 시대에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죄악시되고 있었다.¹⁷⁾ 이런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Hamlet이 모친의 죄에 대하여 품고 있는 감정이 과도하다는 Eliot의 주장은 좀 지나친 견해가 아닌가 싶다.

제 1 득백이 끝나자 비통한 절망감에 빠져있는 Hamlet에게 Wittenerg 대학 학우인 Horatio가 찾아온다. 왕자에게 그의 부친의 망령의 출현을 알리려 온 것이다. Hamlet과 Horatio의 우정이 매우 깊다는 것은 이 국의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지만 그들이 처음 만나는 이 장면에서는 Hamlet의 따뜻한 우정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Horatio가 찾아온 용건에 대하여 얼마 동안은 말을 끄내지 못할 정도로 이 학우와의 재회를 기뻐하며, 함께 온 Marcellus와 Bernardo도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는 제1 득백 끝에서 가슴이 찢어져도 자기의 심증을 결코 남에게 토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도¹⁸⁾ 그런 폐쇄된 심경은 친구를 맞이하자 부분적으로나마 개방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친의 재혼을 슬퍼하는 그의 솔직한 심경을 신랄한 비꼬음을 가지고 토로하기까지 한다.

Thrift, thrift, Horatio. The funeral bak'd meats
Did coldly furnish forth the marriage tables.
Would I had met my dearest foe in heaven
Or ever I had seen that day, Horatio. (I. ii. 180-183)

이렇게 지독한 독설을 서슴치 않는 냉혹한 Hamlet, 그리고 조금 전에는 격렬한 인간혐오에 빠져있던 염세주의자인 Hamlet이 Horatio와 두 신하에게 보이는 따뜻한 우정과 인간미는 그의 복잡한 성격이 새로이 드러내는 놀라운 일면이다.

Hamlet이 망루에서 Horatio, Marcellus와 함께 유령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궁전에서 주연이 배풀어지고 왕이 술잔을 들이킬 때마다 북을 치고 대포를 쏘는 소리가 들려온다. Hamlet은 이때 Denmark 국민의 음주의 풍습을 신랄히 규탄한다.

But to my mind, though I am native here
And to the manner born, it is a custom
More honour'd in the breach than the observance
...
(I. iv. 14ff.)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의 악습을 마치 자기의 죄악이라도 되는듯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17) Wilson, pp. 39-44 참조.

18) "But break, my heart, for I must hold my tongue." (I. ii. 159).

Hamlet에게서 우리는 부패한 국가의 현실을 예사로 보아넘기지 못하는 그의 예민한 도덕적 감수성과 고귀한 이상주의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계속하여 Hamlet은 그의 유명한 성격론¹⁹⁾을 개진하는데 유령의 출현을 불안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기이한 감을 주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고에 잠길 수 있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Hamlet은 흔히 명상과 사색 만을 일삼는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되어 왔지만 유령과 만나는 장면에서는 놀랄만큼 용감한 그의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유령이 말 없이 그에게 손짓하며 으슥한 장소로 유인하려 하자 신하들이 그를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그들은 유령을 악마로 알고 있으며 Hamlet 자신도 그런 의심을 품고 있다. Horatio가 말하듯이 유령은 Hamlet을 위협한 장소로 유인하여 미치게하거나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Hamlet은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하면서 유령을 뒤따르려 한다. 신하들이 굳이 못가게 붙들자 그는 칼을 빼어들기까지 하며 웨친다.

My fate cries out

And makes each petty artire in this body
As hardy as the Nemean lion's nerve.
Still am I call'd. Unhand me, gentlemen.
By heaven, I'll make a ghost of him that lets me. (I. iv. 81-85)

그리고는 기어코 유령을 뒤쫓는다. 여기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무사다운 Hamlet의 일면이 약여하게 나타나 있다. 만약 그가 나약하고 비급한 인간일 뿐이었다면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령에 의하여 비열한 암살의 진상이 폭로되기 시작하자 Hamlet은 민감한 청년답게 격하는 감정에 압도되고 사실을 빨리 말해 달라고 유령에게 재촉한다.

Haste me to know't, that I with wings as swift
As meditation or the thoughts of love
May sweep to my revenge. (I. v. 29-31)

여기에는 Hamlet이 유령의 이야기를 듣고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그대로 행동화하여 복수를 향하여 돌진하려는 그의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의 일면이 잘 나타나 있다. 유령의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Claudius의 인륜에 반한 비열한 행위가 폭로되기 시작하자, Hamlet은 자기 심중에 일찍부터 품어온 예감이 적중한 것에 스스로 놀란다.

O my prophetic soul! My uncle! (I. v. 41)

이것은 그의 예민한 직감력을 보여주는 좋은 한 예가 될 수 있다.

유령은 자기가 Claudius에 의하여 무참히 독살되고 왕관과 왕비를 동시에 빼앗겼음을 폭로하고 마지막으로 Hamlet에게 복수할 것을 명령한다.

If thou has nature in thee, bear it not,
Let not the royal bed of Denmark be

19) I. iv. 23-38 참조.

A couch for luxury and damned incest.
 But howsoever thou pursuest this act,
 Taint not thy mind nor let thy soul contrive
 Against thy mother aught, Leave her to heaven,
 And to those thorns that in her bosom lodge
 To prick and sting her. (I. v. 81-88)

이 명령 속에는 Hamlet이 수행하기 힘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Denmark의 왕위를 불의와 음란의 자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물론 Claudius의 채거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일에 매진하더라도 마음을 더럽히거나 모친을 해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여기에서 “Taint not thy mind”라는 말은 종래 학자들에 의하여 별로 주목되어 오지 않았는데 Hudson이

Time and manner are left to Hamlet, only he is to keep himself clean from crime and from dishonour; his revenge must be righteous an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justice, not merely personal.²⁰⁾

이라고 주석하고 있듯이 Hamlet은 사적인 복수가 아닌 대의명분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복수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령도 복수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Murder most foul, as in the best it is, (I. iv. 27)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비열하지 않은 복수를 원하고 있음을 분명하다. 또 Elizabeth 시대의 양식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수를 종교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n short, Elizabethan moralists condemned revenge as illegal, blasphemous, immoral, irrational, unnatural, and unhealthy—not to mention unsafe. Moreover, not only did revenge violate religion, law, morality, and common sense, it was also thoroughly un-English.²¹⁾

이리하여 암흑시대의 복수의 영웅이 아니고 최고의 감수성을 지닌 Renaissance의 왕자인 Hamlet에게 과하여진 복수 의무는 많은 곤란이 예상되며, 모친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유령의 명령은 그의 임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Hamlet은 유령과 헤어지자 국도로 혼란되고 거의 광적인 홍분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몸과 마음을 가누려고 애쓰면서 유령의 명령 이외의 모든 것을 기억에서 다 지워버릴 것을 맹세하고 Claudius에 대한 복수를 굳게 다짐한다. 이때 Hamlet이 취하는 행동은 높시 홍분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그의 출적한 심정의 발로이다. 모친의 재혼에 대한 그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복수를 다짐하는 감정도 자식으로서의 의무적인 감정을 넘어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그의 진심에서 나온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수의 대상자인 간교한 Claudius는 지금 Denmark의 왕,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므로 그를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 된다. 부친의 죽음의 진

20) Henry Norman Hudson, ed., *The Tragedy of Hamlet*, New Hudson Shakespeare ed. (Boston: Ginn and Co., 1909), p. 53.

21) Eleanor Prosser, *Hamlet and Reveng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67), p. 10.

상을 알기 이전에 이미 Hamlet은 죄악한 인생, 뒤틀린 세상에 국도의 환멸과 혐오를 품어 죽음까지 생각하였다. 그토록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에게 그 세상을 청소하는 일은 맡겨 줬고 「마음이 병든 자에게 치유하고 정화하고 조화를 만들어내라고 명령되는」²²⁾ 것이다. Hamlet에게 닥쳐온 운명의 시련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제 1막 끝에서 Hamlet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생각하고 침통하게 말한다.

The time is out of joint. O cursed spite,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I. v. 196-197)

Goethe는 Hamlet의 이 비통한 대사 속에 그의 성격을 해명하는 열쇠가 숨어있다고 보아

To me it is clear that Shakespeare meant, in the present case, to represent the effects of a great action laid upon a soul unfit for the performance of it. In this view the whole piece seems to me to be composed. There is an oak-tree planted in a costly jar, which should have borne only pleasant flowers in its bosom; the roots expand, the jar is shivered.²³⁾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서론에서 이미 인용한 그의 Hamlet관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Werther적 Hamlet은 이 극의 주인공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멀며 Shakespeare가 그의 극에서 묘사하려고 시도한 것이 무능력자에 과해진 불가능한 임무가 아님은 분명하다.²⁴⁾ Goethe는 위의 Hamlet의 두 줄의 독백을 너무 중대시하고 또 주인공의 다른 장면에서의 언동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있다. Ophelia에게 하는 야비한 말, 모친에 대한 독설, Polonius의 시체를 버리려 갈 때의 태연한 태도, Rosencrantz와 Guildenstern에 대한 냉혹한 조처, 해적선에 옮겨타는 대담한 모험 등은 Werther적 Hamlet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언동이다. Shakespeare의 Hamlet은 Werther보다는 훨씬 더 힘차고 정열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지녔으며, 그런 것들이 철학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고,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시적 정서 등과 교차된 복잡한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독백에서 Hamlet이 자기의 의지박약이나 의무수행의 희피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는 커다란 용기와 능력을 지녔지만 너무나 엄청난 임무가 하필 자기에게 부과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제 1막이 끝난지 수주 내지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Hamlet은 돌연 사랑하는 Ophelia 앞에 나타나서 그녀를 놀라게 한다. 제 1막에서 그가 입고 있었던 검은 상복은 부친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시가 됨과 동시에 그의 심중의 우울과 비탄을 상징함으로써 그가 외관과 실체가 일치하는 인간임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는 유령을 만난 후 변화한 그의 심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복장을 하고 있다. Ophelia는 그의 괴상한 모습에 대하여 Polonius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My lord, as I was sewing in my closet,
Lord Hawlet, with his doublet all unbracl'd,
Not hat upon his head, his stockings foul'd;

22) "a sick soul is commanded to heal, to cleanse, to create harmony." Knight, p. 20.

23) Goethe, p. 67.

24) Bradley, pp. 80-81 참조.

Ungarter'd and down-gyved to his ankle,
 Pale as his shirt, his knees knocking each other,
 And with a look so piteous in purport
 As if he had been loosed out of hell
 To speak of horrors, he comes before me. (II. i. 77-84)

복장 만이 아니라 행동도 괴상하다.

He took me by the wrist and held me hard.
 Then goes he to the length of all his arm,
 And with his other hand thus o'er his brow
 He falls to such perusal of my face
 As a would draw it, Long stay'd he so.
 At last, a little shaking of mine arm,
 And thrice his head thus waving up and down,
 He rais'd a sigh so piteous and profound
 As it did seem to shatter all his bulk
 And his being. (II. i. 87-96)

이러한 Hamlet의 괴상한 행동이 위장인지 또는 정말로 미친데서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는 간단히 단정지우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종래에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여러가지로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그의 지금의 복장은 분명히 광인의 복장이다.

Hamlet's "madness," as it impressed the audience of the Globe, was conspicuously a madness "in clothes."²⁵⁾

그러나 지옥에서 나온 사람 같았다는 Ophelia의 말은 그의 유령과의 대면을 회상시킨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두 무릎을 와들와들 떨었다는 말과, Ophelia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깊은 한숨을 치량하게 쉬었다는 말에는 Hamlet의 행동을 위장으로 만 볼 수도 없게 하는 무엇이 담겨 있다.

앞 장에서 Hamlet은 유령과 헤어진 후 그의 안전을 염려하여 뒤쫓아온 Horatio와 Marcellus에게 자기가 앞으로 "antic disposition"을 취할지도 모르는데 그 동기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일체 아는체 하지 말도록 맹세시켰다.

As I perchance hereafter shall think meet
 To put an antic disposition on—
 ... (I. v. 177ff.)

여기에서 Hamlet이 말하는 "antic disposition"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하여 이 국은 아무런 해답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antic disposition"을 복수국의 전통에 따라 「양광」의 뜻으로 해석하면 Hamlet은 자기의 의무 수행에 많은 곤란이 따를 것을 예측하고, Claudius의 눈을 속임으로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얻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ertrude를 노출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은 복수를 추

25) J.Q. Adams, ed., *Hamlet: Prince of Denmark*, "Commentary",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29), p. 224.

행하라는 유령의 명령을 상기하면 이 해석에 수긍이 간다. 또 한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²⁶⁾ Hamlet은 유령을 만난 후 잠시 동안 극도로 흥분하여 Horatio가

These are but wild and whirling words, my lord. (I. v. 139)

라고 말할 정도로 이상한 언동을 하였는데, 자기에게 부과된 무서운 의무를 다시 생각해보며 앞으로도 다시 그런 「기괴한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고 보아 그것을 예고해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마 "antic disposition"에는 이상 두가지의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여간 유령을 만난 후 Hamlet의 거동은 Eliot이 말하였듯이 「광기보다는 덜하고 위장보다는 더한」²⁷⁾ 것이다. 제 1막 5장에서 Hamlet이 앞으로 "antic disposition"을 취할지도 모른다고 한 말과 제 2막 1장에서 Ophelia가 전하는 그의 거동 사이에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이 두 장은 연속되어 있고 당시의 무대에서는 막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Hamlet의 Ophelia에 대한 행동은 정신이상의 소치인지 또는 단순한 양관인지 단정할 수 없는 당혹감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Is he still as frenzied as we have ourselves seen him to be, or only pretending to be so, or partly pretending to be so and partly?—? But what Shakespeare wants is just to this extent to puzzle us, to make us curious to see Hamlet for ourselves again, and to prepare us to put the same questions when we do see him; when, however, we shall still be left almost as puzzled.²⁸⁾

아마 Shakespeare는 Hamlet의 심리를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의 경계에 두어 이 양쪽을 자유로이 교차시킴으로써 그의 언동의 폭을 넓히고 그것에 의하여 그의 성격을 다양화시키려고 의도하였을 것이다.

제 2막에서 Hamlet이 자기의 양광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그 대상자로서 우선 Ophelia를 택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녀는 Hamlet이 일찍부터 사랑을 바쳐왔는데도 Polonius의 지시를 따라 그의 사랑을 거절해 왔다. 그리하여 Hamlet은 그녀가 Polonius에게 순종하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Polonius는 왕의 가장 가까운 침복이므로 왕을 속이기 위하여 그를 속일 필요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하여는 Ophelia를 속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Hamlet은 적을 방심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도구로 쓰는 셈이다. 그의 이 냉철한 계획은 일부 성공하게 되고 Polonius는 Hamlet이 자기 딸에게 실연해서 발광했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Claudius는 Hamlet의 변화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의 학우인 Rosencrantz와 Guildenstern으로 하여금 그의 진심을 탐지케 한다. 간교한 Claudius는 그가 자기의 왕위에 도전하는 어떤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왕의 장례 후 Wittenberg의 학창생활로 돌아가려는 Hamlet을 Gertrude와 함께 말린 것²⁹⁾도 위험한 인물을 자기 곁에 두어 직접 감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Polonius는 Hamlet이 Ophelia에 대한 실연 때문에 발광했다고 왕에게 보고하지만 그가 절 납득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판단이 정확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술책을 꾸며낸다. 그는

26) Wilson, pp. 92-93 참조.

27) "less than madness and more than feigned," Eliot, p. 102.

28) Harley Granville-Barker,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 (London: B.T. Batsford Ltd., 1958), p. 68.

29) I. ii. 112-119 참조.

Hamlet이 복도를 지나갈 때 Ophelia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고 막 뒤에 숨어서 그들 사이의 대화를 엿듣자고 왕에게 제의한다. Wilson은 이때 Hamlet이 복도를 걸어 나오다가 왕과 Polonius가 자기를 시험할 계획을 의논하고 있는 것을 엿듣는다고 본다.³⁰⁾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되는 Hamlet과 Polonius 사이의 대화와 Hamlet의 Ophelia에 대한 불가사의하게 냉혹한 언동의 동기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하여간 Hamlet은 아무것도 모르는 체 책을 읽으며 등장한다. 여기에서 Polonius가 처음부터 그를 광인으로 취급하여 “Do you know me, my lord?”라고 물는데 대하여 Hamlet이 “Excellent well. You are a fishmonger.”라고 매우 당돌하고 불가사의한 말로 답하는데서 시작되는 “Fishmonger scene”³¹⁾에서 Hamlet은 Polonius를 시종 신랄하게 우롱하고 Ophelia를 팔려고 하고 있다고 비꼰다. 이 장면에서 보이는 Hamlet의 언동은 광인의 소치로 볼 수도 있을 만큼 견접을 수 없고 시종 신랄한 독설로 충만해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말에는 Polonius도

Though this be madness, yet there is method in't. (II. ii. 205-206)

라고 말할 정도로 조리가 있다. 이 대화에서 Hamlet이 광인을 가장하고 보여주는 기지, 풍자, 유우미는 놀라울 정도로 기발하고 참신하다. 그의 상대자인 Polonius는 즉흥적인 기지문답이나 수사학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그런 재주 쯤은 Hamlet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만다. 이리하여 Polonius는 완전히 Hamlet의 놀림감으로 시종할 뿐 그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Hamlet이 Ophelia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실연 탓으로 발광했다는 종래의 확신을 굳힐 뿐이다.

뒤이어 Rosencrantz와 Guildenstern이 들어오자 Hamlet은 바로 직전까지 Polonius에게 대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매우 다정스럽게 그들을 맞이한다.

My excellent good friends. How dost thou, Guildenstern?

Ah, Rosencrantz. Good lads, how do you both? (II. ii. 224-226)

계속하여 Hamlet은 앞에서 Horatio를 처음 맞이하였을 때³²⁾ 보여주던 것과 같은 따뜻한 우정을 가지고 이 오랜 친구들에게 다정스러운 이야기를 건넨다. 그러나 그의 예민한 통찰력은 그들이 친구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비밀을 탐지하려 온 왕의 앞잡이인 것을 곧 간파하게 한다. 그들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의 취약상을 또 한번 실감한 Hamlet은 자기의 침울한 심중을 우주와 인간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대조시키면서 그들에게 토로하는데, 이 대사 속에 들어있는 그의 우주와 인간관리는 이미 앞에서 인용한 바 있다.

I have of late, but wherefore I know not, lost all my mirth, forgone all custom of exercises; and indeed it goes so heavily with my disposition that this goodly frame the earth... why, it appeareth nothing to me but a foul and pestilent congregation of vapours. What piece of work is a man,...and yet, to me, what is this quintessence of dust? Man delights not me—nor woman neither, though by your smiling you seem to say so. (II. ii. 295-310)

30) Wilson, pp. 106-108 참조.

31) II. ii. 173-219.

32) I. ii. 160-183 참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비밀을 탐지하려온 스파이들이 왕에게 보고하도록 그들에게 자기의 심중을 미리 일러주는 말이다. 그러나 이 대사에는 동시에 그의 솔직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다. 이제 어릴 때부터 사귀어 온 두 친구 조차도 배반자로 변신한 것을 보고, Hamlet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절망과 환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순회극단의 Elsinore 궁전 방문은 Hamlet의 기분을 완전히 전환시킨다. 그는 배우들을 옛 친구로서 정중하고 따뜻한 우정으로 환영하고 연극에 능동적이고 조혜깊은 관심을 표시한다. 그의 요청에 응하여 배우 우두머리가 Priam의 최후를 읊어가다가 뜡시 홍분하여 자신의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Hamlet은 큰 충격을 받는다. 이때에 그는 그가 때때로 보이는 극도의 민첩성을 가지고 왕 앞에서 「Gonzago 살해」의 연극을, 자신이 써 넣는 짧은 대사를 삽입하여 다음날 밤에 상연하기로 계획한다. 배우들이 나가자 그는 “O what a rogue and peasant slave am I!”로 시작되는 그의 제 2 독백³³⁾을 말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조금 전에 배우 우두머리가 자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꾸민 이야기를 읊으면서도 그렇게 감동하여 눈물까지 흘린데 반하여, 무위로 소일하고 있는 자신을 격렬하게 책망한다.

A dull and muddy-mettled rascal, peak
Like John-a-dreams, unpregnant of my cause,
And can say nothing—no, not for a king,
Upon whose property and most dear life
A damn'd defeat was made, Am I a coward? (II. ii. 562-566)

이어서 그는 Claudius를 생각하고 잠시 격정에 빠지지만 홍분을 가라앉히고, 이미 계획한 연극 상연을 상기하면서 그것에 의하여 왕의 죄를 확인해 보려는 그의 의도를 피력한다. 이어서 Hamlet은 그가 본래 유령의 정체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것 같이 말한다.

The spirit that I have seen
May be a devil, and the devil hath power
T'assume a pleasing shape, yea, and perhaps,
Out of my weakness and my melancholy,
As he is very potent with such spirits,
Abuses me to damn me. (II. ii. 594-599)

여기에서 Hamlet은 자기의 복수지연에 대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흔히 생각되고 있다.³⁴⁾ 사실 그는 유령을 만난 직후에 그것을 「진짜 유령」³⁵⁾이라고 불렀고, 그 후에도 유령의 정체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Wilson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듯이³⁶⁾ Elizabeth 시대 사람들은 유령의 정체에 대하여 엉갈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흔히 그것을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 들이는 악마의 화신으로 생각하였으므로, Wittenberg 대

33) II. ii. 544-601.

34) H.B. Charlton, *Shakespearian Tragedy* (C.U.P., 1948) p. 89 참조.

35) "an honest ghost" (I. v. 144).

36) Wilson, pp. 60-78.

학생안 신교도 Hamlet이 유령을 의심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 Laertes 처럼 즉시 맹목적으로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색에 잠기기를 더 잘 하는 Hamlet로서는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납득 시킬만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확증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오로지 그의 우유부단이나 복수지연의 정당화로만 간주된다면 그의 의도를 곤혹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하여간 그는 연극을 이용하여 Claudius에 대한 확증을 잡게 되기를 열망하며, 그것에 의하여 자기혐오를 진정시키고 괴로운 자기 마음에 잠시나마 위안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학자이며 동시에 무사인 Hamlet의 심중에서는 두 가지의 엇갈린 감정이 갈등을 계속해 왔다. 모친의 근친상간적인 재혼은 그의 학자적 천성을 자극하여 고뇌와 염세로 몰아세움으로써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이와 반대로 부친을 위한 복수는 그의 무사적 천성을 자극하여 그를 분노와 행동으로 쟁취하였으며, 그의 그러한 일면을 우리는 제 2 독백에서 자신을 격렬하게 질책하면서 행동에 착수하려고 애쓰는 Hamlet에게서 볼 수 있었다. 그가 복수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기의 이러한 내면적인 분열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3 독백³⁷⁾은 그의 심중에서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die—to sleep;
 No more; and by a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d, To die, to sleep;
 To sleep, perchance to dream—ay, there's the rub; (III. i. 56-65)

“To be, or not to be”가 생사를 가리키느냐, 복수를 가리키느냐, 또는 사후의 존재의 유무를 의미하느냐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구구하다.³⁸⁾ 그러나 제 2 독백에서 보여주었듯이, Hamlet은 이제 왕에 대한 행동에 착수할 계획을 꾸미고 있으며, 살아 있으면 복수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상명령이므로 “To be, or not to be”에는 생사나 복수의 어느 한쪽 만이 아니라 양쪽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는 사후의 세계를 명상하며 그것의 미지의 상태가 주는 공포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살을 하거나,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 현세의 부정을 참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Thus conscience does make cowards of us all,
 And thus the native hue of resolution

37) III. i. 56-90.

38) Alex Newell, "The Dramatic Context and Meaning of Hamlet's *To be or not to be* Soliloquy," *PMLA*, Vol. LXXX, No. 1 (Mar., 1965), pp. 38-44 참조.

Is sicklied o'er with the pale cast of thought,
 'And enterprises of great pitch and moment
 With this regard their currents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III. i. 83-88)

여기에서 Hamlet은 자기의 복수에 죽음이 뒤따를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공포가 그의 깊은 사고에 대한 천성적 습관을 자극하여 무의식적으로 복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찾게 하고 있다고 흔히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Kettle이 말하고 있듯이³⁹⁾ Hamlet은 오히려 복수에 뒤따를 죽음에 도전하고 그것에 대한 공포에 의하여 자기의 의무가 무시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간 이 독백이 그의 철학적 명상에 대한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학자인 그의 면목을 강조하고 있음을 명백하다.

이 독백에 이어서 전개되는 “Nunnery-scene”⁴⁰⁾은 Hamlet이 Ophelia에게 「무익하고 이유 없는 잔인」⁴¹⁾으로 보일 정도로 난폭하고 불가사의한 언동으로 대하는 것 때문에 한결같이 비평가들을 당황시켜 왔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기 모친에 대한 신랄한 공격과 배반자인 두 학우에 대한 냉혹한 처사에서 다시 보여주듯이, Hamlet에게는 분명히 잔인한 일면이 있다. 그는 Ophelia에게 순결한 첫사랑을 바쳐왔으며 또 그 사랑은 나중에 그가 Laertes와 그녀의 묘에서 격투한 후에

I lov'd Ophelia. Forty thousand brothers
 Could not with all their quantity of love
 Make up my sum. (V. i. 264-266)

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최후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만나기를 거절하고 그의 편지를 돌려보냄으로써, 이미 모친의 재혼을 통하여 여자의 사랑의 가치를 체득한 그를 실망시켰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녀는 다시 그의 선물마저 반환하려 할 뿐만 아니라 적의 decoy로 변하여 자기를 속이려고 한다. 이러한 Ophelia에게서 그는 「그의 모친의 반복」⁴²⁾을 보게 되며, 모친이 그에게 안겨준 환멸과 증오가 한꺼번에 그녀에게 폭발한다.

Get thee to a nunnery. Why, wouldst thou be a breeder of sinners? I am myself indifferent honest, but yet I could accuse me of such things that it were better my mother had not borne me,...What should such fellows as I do crawling between earth and heaven? We are arrant knaves, all, believe none of us. Go thy ways to a nunnery. (III. i. 121-130)

여기에는 Ophelia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미움이 강렬하게 교차되어 있다. 이상주의자로서 모친의 재혼에서 육정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는 다시 여자의 방종과 결혼을 신랄하게 공격한다.

39) Thomas M. Kettle, "A New way of Misunderstanding Hamlet" (1905), *The Day's Burden* (New York, 1918); rep. in *Hamlet: Enter Critic*, p. 143.

40) III. i. 90-151.

41) "useless and wanton cruelty", Walter Raleigh ed., *Johnson on Shakespeare* (O.U.P., 1957), p. 196.

42) "a repetition of his mother", E.M.W. Tillyard, *Shakespear's Problem Plays* (London: Chatto & Windus, 1950), p. 21.

God hath given you one face and you make yourselves another. You jig and amble, and you lisp, and you nick-name God's creatures, and make your wantonness your ignorance. Go to, I'll no more on't, it hath made me mad. I say we will have no mo marriage. Those that are married already—all but one—shall live; the rest shall keep as they are. To a nunney, go. (III. i. 144-151)

그는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에 압도되어 그녀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도 안하고 있다.

「Gonzago 살해」의 연극 상연을 앞두고 Hamlet은 배우들에게 자기가 써 넣은 대사의 연출에 대하여 지시를 주고 연기의 기술에 대한 그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그의 예술에 대한 깊은 조혜를 보여준다. 그리고 국에 대한 왕의 반응을 지켜보아 주도록 Horatio에게 부탁하면서 의미심중한 말을 던진다.

blest are those
Whose blood and judgment are so well commedd!
That they are not a pipe for fortune's finger,
To sound what stop she please. Give me that man
That is not passion's slave, and I will wear him
In my heart's core, ay, in my heart of heart,
As I do thee. (III. ii. 68-74)

(III. ii. 68-74)

이것은 Horatio의 천성을 칭찬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그는 자기가 운명의 손 끝에서 놀며 경쟁의 노예가 된 사람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연극이 끝난 후의 그의 행동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그는 불손한 언사로 왕과 왕비에게 대하고 Polonius를 조롱하며 Ophelia에게도 독설을 퍼붓는다.

연극은 성공을 거두어 Hamlet은 왕의 양심을 기대이상으로 시험해 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계획이 성공한데 광적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며 음악을 요구하고 피리를 가져 오라고 의친다. Rosencratz와 Guildenstern이 그를 만나고자하는 왕비의 분부를 전하려 오자 Hamlet은 그들을 조롱하고 피리를 가지고 굴복시키는데,⁴³⁾ 거기에서 보여주는 그의 기지와 지혜는 놀랄만하다. 혼자 남게되자 그는 격렬한 어조로 자기의 살의를 토로 한다.

'Tis now the very witching time of night,
When churchyards yawn and hell itself breathes out
Contagion to this world. Now could I drink hot blood,
And do such bitter business as the day
Would quake to look on. (III. ii. 379-383)

그러나 다음 순간에 그는 왕을 살해하기 전에 모친부터 개심시키기를 염망하는 자기의 심정을 말한다.

Soft now to my mother,

O heart, lose not thy nature. Let not ever

43) III. ii. 340-363 참조.

The soul of Nero enter this firm bosom:
 Let me be cruel, not unnatural.
 I will speak daggers to her, but use none.
 My tongue and soul in this be hypocrites;
 How in my words somever she be shent,
 To give them seals never my soul consent (III. ii. 383-390)

이러한 기분으로 모친의 침침로 가는 도중 그는 왕이 기도하며 혼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방금 살의를 다짐하였던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Now might I do it pat, now a is a-praying.
 And now I'll do 't. And so he goes to heaven;
 And so am I reveng'd. (III. iii. 73-75)

이렇게 말하며 그는 칼을 빼어들고 왕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그를 이러한 상태에서 죽인다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빼어든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며 자기의 복수가 무서운 공포와 저주를 동반할 때까지 연기되기 를 희망한다.

Up, sword, and know thou a more horrid bent:
 When he is drunk asleep, or in his rage,
 Or in th'incestuous pleasure of his bed,
 At game a-swearin, or about some act
 That has no relish of salvation in't;
 Then trip him, that his heels may kick at heaven,
 And that his soul may be as damn'd and black
 As hell, whereto it goes. (III. iii. 88-95)

이러한 Hamlet의 말이 진정이냐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구구하다. Harrison은 복수란 지옥의 불과 영원한 고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Hamlet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그러나 Hamlet의 말이 그의 지금의 심정을 솔직히 토로한 것이라는 점은 시인하더라도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한 말에 불과하며, 또 나중에 모친의 침실에서 유령이 다시 나타나자 그가 복수지연에 대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토로하는 것⁴⁵⁾을 보면 Hamlet은 여기에서 그런 악마적인 말로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복수지연의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Tillyard는 매우 공감이 가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The world of Hamlet is one in which unexpressed motives are likely to count. There is no need to decide whether Hamlet would have killed Claudius had he found him less piously employed, for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lay, but the tenor and tone of Hamlet's speech shows him glad to have an excuse not to kill, an excuse which to Shakespeare's audience was quite

44) G.B. Harrison, *Shakespeare's Traged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1), p. 103 참조.

45) III. iv. 107-109 참조.

colourable, and which we can believe or disbelieve to have been so to Hamlet himself, according to our tastes.....As to the motives of Hamlet's gladness to have an excuse, we may conjecture to our hearts' content. It may be no more than that he was so absorbed in his resentment against his mother that revenge of his father's death—an irreversible event—was a mere irrelevance, a matter of minor importance, to which his mind was never truly directed.”⁴⁶⁾

하여간 Claudius의 죄악의 확증을 잡은 Hamlet로서는 그의 살해가 일각을 다룰만큼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보다는 오히려 모친의 양심을 깨우쳐 놓는 것이 지금 그에게는 더 긴급한 일이다. 그는 모친의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몹시 홍분하고 있다. 모친이 오늘 국의 상연에서 보인 그의 행동을 꾸짖자, 그는 도리어 모친의 행위를 신랄하게 공박한다.

Queen. Hamlet, thou hast thy father much offended.

Ham. Mother, you have my father much offended.

Queen. Come, come, you answer with an idle tongue.

Ham. Go, go, you question with a wicked tongue. (III. iv. 8-11)

여기에서 벌써 Hamlet은 모친에게 말의 단검을 휘두러기를 개시하고 있다. Gertrude는 아들의 무례한 처사에 놀라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Hamlet은 그녀를 난폭하게 의자에 밀어 앉히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녀는 겁에 질려서 도움을 청하고 거기에 막 뒤에 숨어 있던 Polonius가 호응하자 Hamlet은 그것이 왕인줄 생각하고 단숨에 찔러 죽인다. 이러한 그의 충동적인 행동은 조금 전에 기도중인 왕을 살려주던 그의 행동과 꼭 대조적이다. 자기가 죽인 것이 Polonius임을 발견하지만 그는 자기의 행동을 당장에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으며 오직 그것이 왕이 아님을 유감으로 생각할 뿐이다.

Thou wretched, rash, intruding fool, farewell.

I took thee for thy better. Take thy fortune:

Thou find'st to be too busy is some danger. (III. iv. 31-33)

여기에는 이미 우리가 여러번 보아온 그의 냉혹한 일면이 유감 없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가 얼마나 모친을 훈계하려는 자기의 목적에 몰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는 모친에게 더욱 더 가혹한 채찍질을 가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식시키려고 애쓴다. 그의 말이 얼마나 예리한가는 Gertrude의 애원이 잘 말해주고 있다.

O speak to me no more.

These words like daggers enter in mine ears.

No more, sweet Hamlet. (III. iv. 94-6)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공격을 계속하여 모친을 기절 일보 직전까지 물고 간다. 이때에 부친의 유령이 다시 등장하여 그의 무딘 복수심을 분기시킴과 동시에, 모친을 이상 더 괴롭히지 말도록 명령함으로써 “a center of calm in action”⁴⁷⁾을 마련해 놓는다. Hamlet은 광적인 홍분에서 깨어나서 원래의 고귀한 자기 천성을 되찾게 되고, 다정스러운 어조로 모친에

46) Tillyard, pp. 148-9.

47) Granville-Barker, p. 105.

게 과거를 참회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도록 부탁한다.

O throw away the worser part of it
And live the purer with the other half.
Good night. But go not to mine uncle's bed.

..... (III. iv. 159ff.)

이렇게 하여 Hamlet은 모친을 하늘과 자신의 양심에 맡기라는 유령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셈이다. 그리고 Polonius의 시체를 보자 자기의 경솔한 행동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말을 한다.

For this same lord
I do repent: but heaven hath pleas'd it so,
To punish me with this and this with me,
That I must be their scourge and minister.
I will bestow him, and will answer well
The death I gave him. (III. iv. 174-179)

여기에는 나중에 다시 제기되는, 하늘의 습리에 대한 그의 믿음이 엿보인다.

이제 Hamlet은 이미 그가 말하였듯이⁴⁸⁾ 정말로 운명의 손아귀에 사로 잡히게 된다. Polonius의 살해는 왕에게 그를 영국으로 추방하여 처치할 절호의 합법적인 구실을 제공해 준다. Rosencrantz와 Guildenstern과 함께 항구로 향하는 도중에 Hamlet은 Fortinbras의 군대가 통과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보잘 것 없는 영토를 점령하기 위하여 2만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Poland를 향하여 친군중이다. 이러한 Fortinbras의 장쾌한 행동을 보자 Hamlet은 무위로 날을 보내다가 쫓겨가는 자기의 무기력을 채망하며

How all occasions do inform against me,
And spur my dull revenge. (IV. iv. 32-33)

로 시작되는 그의 제 4 독백⁴⁹⁾을 말하게 된다. 이 독백 속에서 그는 자기의 망각, 명상, 또는 비급이 그의 복수지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암시하고 있다.

Now, whether it be
Bestial oblivion, or some craven scruple
Of thinking too precisely on th'event
A thought which, quarter'd, hath but one part wisdom
And ever three parts coward—I do not know
Why yet I live to say this thing's to do,
Sith I have cause, and will, and strength, and means
To do't. (IV. iv. 39-46)

이것은 흔히 Hamlet이 실행력을 결여하고 또 복수지연이 그가 여기에서 들고 있는 원인중의 어느 하나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좋은 근거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48) III. ii. 68-71 참조.

49) IV. iv. 32-66.

복수를 위한 원인과 수단 뿐만 아니라 의지와 힘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들은 각기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음을 사실이지만 그 어느 것도 그 하나 만이 자연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오히려 그는 여기에서 복수가 자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의 초조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이 독백을 앞으로의 자기의 결의를 표방함으로써 끝맺는다.

O, from this time forth
My thoughts be bloody or be nothing worth. (IV. iv. 65-6)

Hamlet은 영국으로 항해중 자기의 행동과 또 우연의 도움을 받아 다시 Denmark로 돌아온다. 그가 나중에 Horatio에게 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Rosencrantz와 Guildenstern이 잡자고 있는 틈을 타서 왕의 친서를 끄내어 보고 영국에 도착 즉시 자기를 처형하라는 내용을 확인하자, 두 배반자들을 처형하라는 내용으로 바꿔쓴 다른 편지와 교환해 놓는다. 그 다음에 해적선의 습격을 받자 그는 제일 먼저 그 배에 뛰어오르는데, 그 순간 두 배가 떨어져서 그는 혼자 해적들의 포로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Hamlet의 신분을 알자 무사히 Denmark로 그를 실어다 주게 된다. 이러한 모험을 겪는 동안에 Hamlet이 취한 처사는 그의 성격의 여러 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선 왕의 친서를 바꿔치기 할 전후의 그의 심정을 그는 Horatio에게 이렇게 말한다.

Sir, in my heart there was a kind of fighting
That would not let me sleep. (V. ii. 4-5)

이것은 이 극 전체를 통하여서 본 그의 심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며, Sitwell이 지적하였듯이⁵⁰⁾ 이 비극의 epitome로서도 적합한 말이다.

이어서 그는 왕의 편지를 바꿔칠 때의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말한다.

Rashly—

And prais'd be rashness for it: let us know
Our indiscretion sometime serves us well
When our deep plots do pall; (V. ii. 6-9)

그는 여기에서 자기의 행동이 무분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에는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Polonius를 살해할 때도 그러하였고 또 해적선에 혼자 뛰어오르는 무모한 행동 역시 그러하다. 그는 명상 만 일삼는 비행동가는 결코 아니며 자신의 결정에 위하여 자극받을 때는 어떤 위험한 행동이나 잔인한 행위도 서슴치 않을 만큼 힘과 정열에 넘쳐 있다. 따라서 배반자가 된 두 학우를 사지로 보내 놓고도 그는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Why, man, they did make love to this employment.
They are not near my conscience, their defeat
Does by their own insinuation grow.
'Tis dangerous when the baser nature comes

50) Edith Sitwell, *A Notebook on William Shakespeare* (London: Macmillan, 1948), p. 89.

Between the pass and fell incensed points
Of mighty opposites. (V. ii. 57-62)

이것은 추방되기 전에 이며 그가 이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모친에게 말하는 격렬한 대사⁵¹⁾ 와 함께 친구라도 일단 배반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의 냉혹한 성격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Hamlet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이제 그는 아마 선원 옷⁵²⁾을 입고 있음에 틀림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의 복장은 그의 내면과 일치하므로 항해가 그의 정신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Wilson은 이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Hamlet returns from his voyage a changed man, with an air of self-possession greater than at any other time of the play. We are not told why; but we may fancy, if we like, that the seas have helped to expel the "something-settled matter in his heart", or that he has gained confidence from the hoisting of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with their own petar, or that simply his "cause of distemper" is wearing off.....Hamlet, we feel, is himself, or almost himself; and we begin to hope once again, though because he is the hero of a tragedy we know that our hope is vain!⁵³⁾

Hamlet은 Horatio와 함께 묘지에 나타나서, 무덤파는 일꾼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덤을 파고, 해골을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내던지는 것을 보고, 인생과 명예의 무상함에 대하여 명상한다. "universal graveyard"⁵⁴⁾라고도 불 수 있는 이 묘지의 장면은,⁵⁵⁾ 추방의 길을 떠나기 전에 그가 Polonius의 시체의 소재를 묻는 왕을 신랄하게 야유하는 장면⁵⁶⁾과 함께 이 비극의 comic relief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그가 무덤파는 일꾼들과의 대화에서 보여주는 기지와 유우머는 그의 성격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에게서는 이제 이전에 보던 생에 대한 혐오나 죽음의 동경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인생의 짐 산고초를 다 겪은 후에 인생과 인간을 달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자기 앞에 파인 새 무덤이 사랑하는 Ophelia의 것임을 알게 되자 격렬한 심적 고통을 받는다. Laertes가 그녀의 무덤에 뛰어들어 함께 둘이 달라고 소리치르는 것을 보자 Hamlet도 뛰어들어 두 사람 사이에 격투가 벌어진다. 이때 그가 Laertes에게 하는 말에는 그의 흥분이 잘 나타나 있다.

'Swounds, show me what thou'rt do.
Woo't weep, woo't fight woo't fast, woo't tear thyself,
Woo't drink up eisel, eat a crocodile?
I'll do't,.....

(V. i. 269ff.)

51) III. iv. 204-211.

52) Cf. "My sea-gown scarf'd about me" (V. ii. 13).

53) Wilson, pp. 266-7.

54) Mack, p. 63.

55) V. i. 1-211.

56) IV. iii. 16-39.

여기에서 그는 또 한번 그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보이는 광적인 행동과 말은 그만큼 그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나중에 그가 이 일에 대하여 Horatio에게 후회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⁵⁷⁾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Horatio에게 외국 땅에서 자기를 쳐형시키려던 왕의 흉계를 설명한 후에 자기의 복수의 결심을 말하고 친구의 동의를 구한다.

Does it not, think thee, stand me now upon—
 He that hath kill'd my king and whored my mother,
 Popp'd in between th'election and my hopes,
 Thrown out his angle for my proper life
 And with such coz'nage—is't not perfect conscience
 To quit him with this arm? And is't not to be damn'd
 To let this canker of our nature come
 In further evil?

(V. ii. 63-70)

이것은 그가 최후까지 복수의 의무를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는 이 국의 끝막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최후에 복수를 성취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의 노력의 소치이기 보다는 오히려 우연이 가져다 준 결과로 보인다.

왕의 흉계로 꾸며진 겸술시합에 나가기에 앞서 Hamlet은 웬지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Horatio는 시합에 나가지 말도록 만류한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답하여 말한다.

Not a whit, We defy augury. There's special providence in the fall of a sparrow. If it be now, 'tis not to come; if it be not to come, it will be now; if it be not now, yet it will come. The readiness is all. Since no man, of aught he leaves, knows aught, what is't to leave betimes? Let be. (V. ii. 215-220)

그는 이에 앞서 왕의 편지를 바꿔치기 할 때의 상황을 Horatio에게 설명하면서

There's a divinity that shapes our ends, (V. ii. 10)

라고 말하였는데, 이런 대사는 이제 그가 신의 습리를 체득하고 사생을 초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는 시합에 임하면서 Laertes에게 그의 부친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충침으로 사과한다.

Give me your pardon, sir. I have done you wrong;
 But pardon't, as you are a gentleman.
 This presence knows, and you must needs have heard,
 How I am punish'd with a sore distraction.
 What I have done
 ...

(V. ii. 222ff.)

57) V. ii. 75-80 참조.

앞에서 왕이 Laertes에게 Hamlet에 대한 복수를 교사하면서

He, being remiss,
Most generous, and free from all contriving,
Will not peruse the foils,

(IV. vii. 132-134)

라고 말하였듯이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Hamlet은 무서운 흥계가 숨어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칼을 끌라 잡는다. 이러한 무관심이야 말로 적이 노린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그는 적의 계획대로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하늘의 습리는 Hamlet에게 복수를 수행시킨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의 모친, Laertes, 그리고 그 자신의 죽음이 수반된다. 그러나 Hamlet은 최후에 가서 그의 모든 고귀한 성품을 되찾으며, Laertes를 용서하고 모친에게 작별을 고하며, 슬퍼하는 신하들을 달래고, Horatio에게 후사를 부탁한 후에

The rest is silence. (V. ii. 363)

라는 신비스러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그리고 왕자의 떠나는 영혼에 Horatio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대사로 작별을 고한다.

Now cracks a noble heart. Good night, sweet prince,
And flights of angels sing thee to thy rest. (V. ii. 364-365)

이렇게 하여 이 비극은 암흑 속에서 시작하여 광명 속에서 막이 내린다. Hamlet이 대표하는 Denmark는 극의 초반에서 암흑 속에서 부정과 부패에 물들고 주인공 자신도 암중모색을 거듭해온데 반하여, 대단원에서는 모든 음모가 폭로되고 그는 고귀한 천성을 되찾으며, 그의 국가도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밝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극의 텍스트를 따라 Hamlet의 모순에 찬 복잡하고도 신비스러운 성격을 추구해 왔다. 이 모순과 복잡과 신비는 그의 성격이 서로 상반되는 양면을 지니고 있는데서 나오며, 우리들이 그의 성격에 어떤 한 특성을 부여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것과 정반대 되는 특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극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우울에 잠겨 있으며 많은 장면에서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흔히 그를 우울증 환자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울이 그의 성격의 한 주요한 특성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전적인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감수성이 강한 대학생인 그가 존경하면 부친의 죽음을 당하여 귀국하였을 때 타락과 부패에 물든 조국을 보았다. 더우기 부친의 장례식을 끝내기가 무섭게 모친은 돌아가신 부친과는 비교도 안되는 야비한 숙부와 근친상간적인 결혼을 하였다. 아들로서 또 왕자로서 인생의 추악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고 그가 우울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천성이 우울한 인간은 아니다. 그는 Horatio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는 언제나 즐겁게 대하며, 무덤과는 일꾼과 같은 악의 없는 인간과 대할 때는 익살맞은 유우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쾌활한 인간이다.

그는 인생과 인간을 혐오하는 비관주의자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놀라운 가능성, 그리고 인생의 무한한 신비를 찬미할 줄 아는 낙관주의자 이기도 하다. 그는 넓고 깊은 교양

과 섬세한 미적 감수성을 지닌 지성인이며 여러 독백 속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넘쳐흐르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공상가이다. 따라서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사고의 탓으로 우유부단하며 자기에게 부과된 복수의 사명을 지연시키는 비급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보초들이 무서워하고 따라가지 말도록 만류하는 유령을 뒤쫓아 그 정체를 추구하는 용기와 행동성, 순회 연극단이 궁정으로 내방하자 당장 그들을 이용하여 왕의 죄악의 확증을 잡기를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즉결과 행동, 그리고 막 뒤에 숨어서 자기 말을 엿듣는 자를 당장에 짤려죽이는 민활, 해적선에 단신 뛰어오르는 용기, 잠깐 사이에 왕의 편지를 바꿔치고 자기를 죽음의 길로 호위해가는 두 스파이들을 대신 사자로 보내는 민첩, 대단원에서 Laertes와의 접술시합에 꽤 허용하며, 감추어진 음모가 폭로되자 왕에게 달려들어 정이 마현한 칼과 득약으로 쳐치하고마는 과단을 가지고 있다.

그는 Horatio에게는 언제나 은근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배우들과 같은 옛 지기를 마지하자 가장되지 않은 충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한다. Rosencrantz와 Guildenstern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따뜻한 우정으로 대한다. 이렇게 그는 따뜻한 인간애에 넘치지만 적에 대하여서는 잔인할 정도로 무자비하다. 왕에게는 시종 신랄한 독설로 대하여, Polonius에게는 야유와 냉소를 퍼붓고, 배반자가 되 두 친구에 대해서도 왕의 앞잡이인 것을 안 후로는 조통을 일삼으며, 그들을 사자로 보내고도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모친에 대하여서도 기절 일보 직전까지 잔인하게 공박한다. 그는 정열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또 미워할 수 있다. Ophelia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지만 “Nunnery-scene”에서 보듯이 그녀를 참혹한 말로써 괴롭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심술궂고 냉정하다.

그는 남을 의심할줄 모를 정도로 마음이 너그려워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또 적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까다로우며, 특히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는 정직하며 정직한 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는 양광의 가면을 쓰고 남을 속인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 하지만 국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한마리의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의 섭리인 것을 깨달으며, 조용하고 단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총명하고 신중하며 일의 성사와 성과를 너무 세심히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둔하고 경솔하며, 충동적이고 발작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그는 공명정대한 기품으로 누구에게서나 존경과 사랑을 받을만 하나, 때로는 자기의 마음 내키는데로 행동하는 이기주의자 이기도 하다. 그는 깊은 사색에 잠기는 철학도 이지만 천지간에는 척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 있음을 시인하는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그의 성격에 있어서 서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특성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요컨대 Hamlet의 성격에서 일관성을 찾아 보기는 어려우며, 그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얼핏 생각하기에 모순도 있다. Hudson은 그의 성격에 대하여

In Hamlet himself we have little less than the whole science of human nature drawn together and condensed.⁵⁸⁾

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성격에 집약되어 있는 인간의 천성은 그것 자체가 원래 모순에 차

58) Hudson, lxxiv.

있는 것이다. 우리는 Hamlet이 우리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순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에게 친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Lewis가

I would go a long way to meet Beatrice or Falstaff or Mr. Jonathan Oldbuck or Disraeli's Lord Monmouth. I would not cross the room to meet Hamlet. It would never be necessary. He is always where I am⁵⁹⁾

이라고 한 말은 그러한 우리의 친밀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Hamlet을 한만디로 부르기는 어렵지만 굳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를 만능의 천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Hamlet은 인간성에 대한 깊은 조혜와 다면의 재능을 지닌 극작가 Shakespeare의 천재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의 손으로도 도저히 창조될 수 없었을 위대한 성격이다.

59) C.S. Lewis, "Hamlet: the Prince or the Poem?" *Studies in Shakespeare: British Academy Lectures*, ed. Peter Alexander (London; O.U.P., 1964), p. 215.